

사경꿀.zip

충남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매거진

VOL. 1

CHUNGNAM
SOCIAL ECONOMY
CENTER MAGAZINE

2024년 8월
창간호

theme

지속가능성의
씨앗을 심다





00 인사말	<u>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를 만들어가겠습니다</u> <u>_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이상영</u>
00 축하	<u>창간을 축하드리며...</u> <u>_충청남도 산업경제실 경제정책과장 김관동</u>
00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소개	<u>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비전·전략·조직</u>
00 사회적경제 지원체계 및 정책안내	<u>충남 사회적경제 정책의 새로운 변화</u>
00 사회적경제 토크뷰	<u>충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u>
00 충남사회적경제기업을 소개합니다	<u>소미더 임팩트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 - 한국특산물유통</u> <u>SVI 지표 컨설팅 그 후 - 사회적협동조합 새동네</u> <u>모두에 마을기업 선정 - 운산하우스달래협동조합</u> <u>사회적경제 창업교육, 소셜그라운드 프로젝트 소개</u> <u>전문상담서비스우수사례 - 더부러주식회사</u> <u>신규 예비사회적기업을 소개합니다 - 힐링숲터사회적협동조합</u> <u>마을기업을 소개합니다 - 마을기업정동영농조합법인</u> <u>협동조합을 소개합니다 - 온양실험실협동조합</u> <u>사업 참여자에서 사회적경제인으로 - 양채정(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u>
00 한울기자단	<u>한울기자단을 소개합니다</u> <u>천안 독립기념관 5월의 플리마켓, 따숨마켓</u> <u>국가유산을 보는 '해안', 사회적기업 해안을 탐방하다</u>
00 사회적경제 이-슈 칼럼	<u>사회적경제 정책 변화와 트렌드, 대응방안</u> <u>_한국사회적경제연대 하재찬 상임이사</u>
00 2024년 하반기 사업 안내	<u>2024 센터 하반기 주요사업 안내</u>

발행처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발행인 이상영
발행일 2024년 8월 30일
주소 충남 홍성군 홍북읍 홍예공원로 20, 3층
홈페이지 www.cnse.kr
연락처 041-406-8120
디자인 (주)디자인사과나무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센터장 **이상영**

반갑습니다.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센터장 이상영입니다.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기존 지원센터의 기능과 인력을 확대하여 2020년 6월 새롭게 개편하였고, 2023년 1월부터 충남마을기업 지원기관의 업무를 통합해 새롭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과 사회적경제 현장의 제조직들이 오랜 시간 함께 논의하고 협력하는 과정을 거쳐 설립된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앞으로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민과 관의 혁신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공동 정책 생산 및 집행 모델을 정립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협동의 정신과 보편적 인간애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생태계 강화, 지역사회 문제 해결,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조직의 창업·성장 단계별로 지원하고, 네트워킹 강화를 위해 활동하겠습니다. 또한 시·군과의 협업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소멸대응을 위한 사회적경제의 역할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의 활성화 및 사회적경제 확산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현장과 정책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서 사회적경제 조직 및 활동가들과 함께 비를 맞고 함께 꿈을 꾸는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자 합니다.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충남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허브기관으로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매거진 「사경꿀.zip」 창간을 축하드리며..

충청남도 산업경제실 경제정책과장 **김관동**

2024년 제1호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매거진 「사경꿀.zip」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번 매거진 창간을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2017년 설립 이래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지역 경제를 구축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으며, 사회적 경제의 가치를 확산하고,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다양한 사회적 경제 조직을 지원하며, 지역 사회의 경제적·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함께하는 사회적경제, 힘센 충남의 동력」이라는 비전을 위해 “사회적경제 전문성 강화”, “지역사회와 상생협력”, “소통·협력 활성화”의 추진전략을 목표로 우리 지역의 사회적 경제를 이끄는 핵심 기관으로서, 창업부터 자립 성장까지 다양한 지원활동을 펼쳐왔으며, 앞으로도 그 역할은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충남도는 사회적 경제조직들의 안정적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 경영컨설팅 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지역내 다양한 주체들과의 협력 및 상생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을 위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며, 창업지원 등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을 발굴·확산할 계획입니다.

사회적 경제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중요한 열쇠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사회적 경제가 더욱 발전하고, 우리 지역 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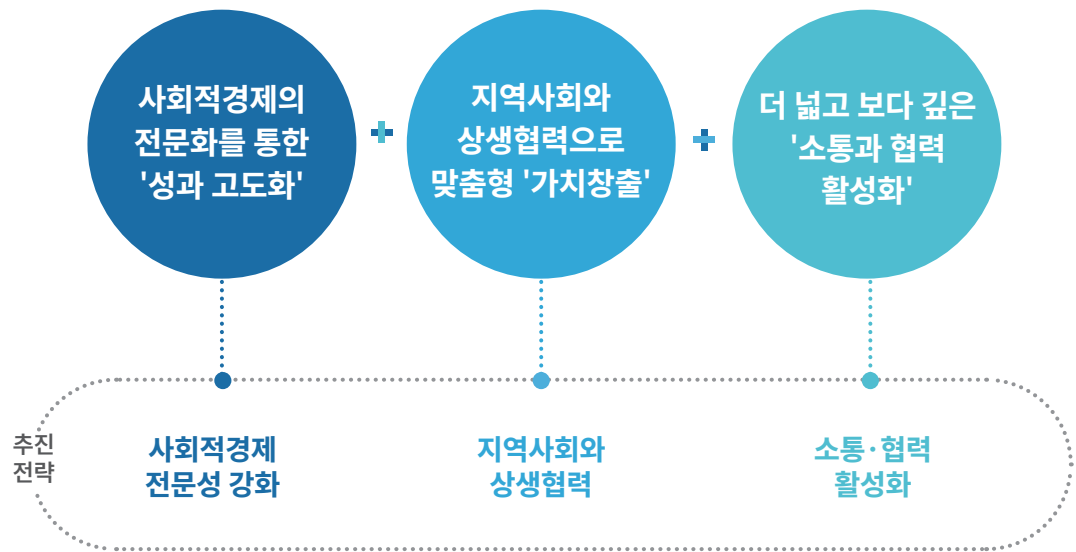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매거진」창간을 통해 사회적 경제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우리 지역 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충남도는 앞으로도 사회적 경제의 자립과 성장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다시 한 번,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매거진」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비전

함께하는사회적경제,
힘센충남의 동력

목표



1 사회적경제 전문성 강화



2 지역사회와 상생협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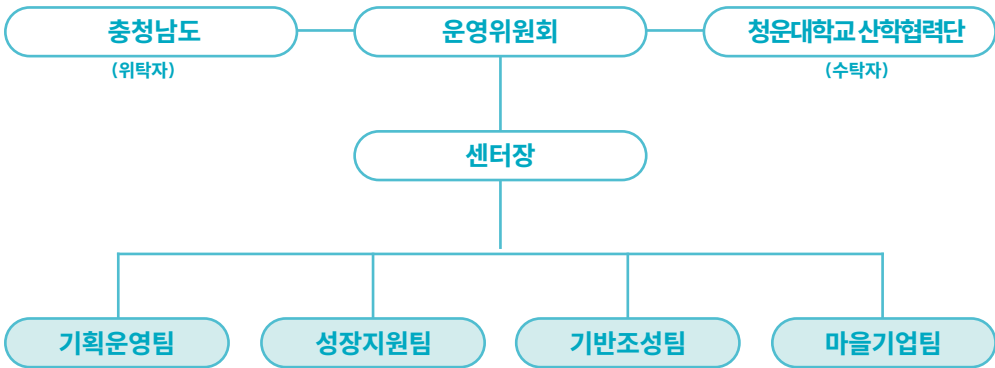
3 소통·협력 활성화



4 사회적경제 진입 지원



조직도



조직별 업무

기획운영팀 (4명)

041)406-8120

- 센터 사업기획 및 예산 총괄
- 센터 운영 및 관리/홍보
- 각종 위원회 관리
- 사회적경제 조사연구 및 DB관리

- 사회적경제 정책 개발 및 제안
- 후원사업 운영
-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홍보

성장지원팀 (4명)

041)406-8130

- 사회적경제 창업교육
- 지역 상생 협력사업
- 사회적경제 경영 컨설팅
- 사회적경제 경영 교육

- CSR 사회적경제 연계
- 사회적경제 경영지원 플랫폼
- 사회적경제 금융 활성화

기반조성팀 (3명)

041)406-8126

- 시군 생태계 조성 지원
- 사회적경제 교육 지원
- 사회적경제 포럼 운영
- 사회적경제 주간행사

- 사회적경제 한마당
- 사회적경제 인식 확산
- 사회적경제 홍보 활성화

마을기업팀 (3명)

041)406-8134

- 사회적경제 기업 진입지원
- 마을기업 DB관리 및 현장지원

- 마을기업 판로지원
- 사회적경제 진입 교육 플랫폼 운영

충남 사회적경제 정책의 새로운 변화



지난 2023년 관계부처 합동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2023~2027년)의 발표는 사회적경제 정책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의 사회적가치 실현과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사회적기업 혁신 전략을 통해 정체성 회복 및 질적 도약을 위한 기업경쟁력 강화를 천명하였고, 사회적가치실현 중심의 평가 및 지원체계 구축으로 중심으로 정책 전환을 가져왔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중 사회적기업 관련 방향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 정책 변화]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유형	◆ 일자리 제공형 중심	▶▶ ◆ 다양한 유형
지원방식	◆ 인건비 등 직접 지원 위주 ◆ 전(全) 사회적기업 동일 지원	▶▶ ◆ 컨설팅, 판로 등 간접 지원 중심 ◆ 사회적가치 평가에 따른 차등 지원
지원체계	◆ 지원사업간 연계 및 모니터링 부족 ◆ 사회적경제 관련 민간위탁 지원기관의 중첩적 서비스 제공	▶▶ ◆ 지원사업간 통합 관리체계 구축,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성과점검 ◆ 핵심서비스 위주 정부 직접 제공

첫째, 지원체계 전면 개편 및 사회적가치 평가를 기반한 지원 연계입니다.

사회적기업의 창의·혁신성을 회복하고,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존의 ‘육성’ 중심의 정책을 ‘자생’ 중심의 지원정책으로 전면 전환하였습니다. 이는 사회적기업이 본연의 목적인 사회적가치 창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사회적가치 평가 결과를 공공구매·세제혜택 등과 연계하고, 경영공시 의무화, 온·오프라인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재정지원의 투명성 및 적정성을 강화하여 사회적기업의 국민신뢰를 제고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둘째, 사회서비스 제공 확대 및 다양성 제고입니다.

공공성·영리성을 모두 갖춘 사회적기업을 통해 정부의 재정적부담이 높은 사회서비스 영역에서의 공급을 확대하여 정부의 복지정책의 불충분한 부분을 메꾸고자 하고, 아울러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문제

를 창의적 방식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창의·혁신형 사회적기업의 본격적인 육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셋째, 사회적기업에 대한 내실있는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기업으로의 성장지원입니다.

건전하고 역량있는 사회적기업이 규모화(Scale-up)하고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민간판로를 확대하고, 투자유치 및 정책자금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서비스 제공 지원기관을 통합하고, 인증·컨설팅 등 사회적기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정부가 직접 제공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내실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앙정부의 사회적기업 관련 정책변화에도 불구하고 충청남도는 정책기조의 변화 속에서도 기존의 지

원사업 변경을 최소화하여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판로 지원, 사업모델 및 협업지원, 교육 및 컨설팅 지원, 금융 지원, 인력지원 등 기존 지원사업의 대부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5년 개관을 목표로 충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청양군 소재)의 건립이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어 충남사회적경제의 허브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충남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의 건립은 지난 10여년간 사회적경제기업의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기반시설의 확충으로 충남사회적경제의 펀더멘탈을 강화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의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영역	세부사업
판로지원	① 충남 사회적경제 온라인 유통 프로모션
	② 온라인 소셜셀러 운영 (연계기업 등)
사업모델 / 협업지원	③ 광역 네트워크 조직 육성 지원
	④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⑤ 지역(광역)특화 사업 (연계기업 등)
	⑥ 사회적기업 시설장비 지원
	⑦ 충남 공유기업 및 공유단체 지원
교육 / 컨설팅지원	⑧ 마을기업 육성사업(신규, 재지정, 고도화, 예비, 우수·모두애)
금융지원	⑨ 사회적경제 기금 융자 지원
인력지원	⑩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
	⑪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⑫ 사회적기업 전문인력지원사업
	⑬ 사회적경제 청년정착(live in CN) 지원

사회적경제 콕터뷰!

인터뷰 김관동
(충청남도 산업경제실
경제정책과장)

충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충청남도 산업경제실 경제정책과장 인터뷰

본인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충청남도 경제정책과장 김관동입니다.

충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해주세요.

튼튼한 지역순환 경제를 위해 청양군의 인구감소, 지역자원 부족 등 지역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내부 선순환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로 2020년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을 청양군에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구. 청양여자정보고에 신축하고 있으며 지하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연면적 7,333m²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의 창업·보육 허브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충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이 설립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충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은 농촌의 인적물적자원 한계로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한 생산-판매-유통 선순환시스템으로 이루어진 연대적 활동방식이 효과적으로 적용되는 시스템으로, 도시처럼 농촌도 연령별·분야별로 모든 세대를 위한 사회적경제의 필요성에 의해 제안되었고, 그 가치를 인정받은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추진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2020년 7월부터 시작하여 올해 12월까지 완공하고, 2025년 3월 개관을 위해 준비하고 있으며, 같은 해 입주예정입니다.

충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에 사회적경제기업의 입주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우선지원,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충남경제진흥원이 함께 입주하며 입주기업 네트워크, 교육·컨설팅,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지역에 특화된 질 높은 사회적서비스를 도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타 지역의 사회적경제 혁신타운과의 차별성이나 충남만이 갖고있는 강점이 있다면?

향후 입주기업의 연차가 되었을 때 충남사회적경제기금 등 다양한 지원과 연계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공공기관, 중간지원조직, 네트워크 조직 등이 함께 입주하여 서로 협력하여 성장해 나갈 예정입니다.

충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설립으로 기대하는 바가 있으신다면?

입주기업을 통해 충남의 사회적경제가 활성화 되고 입주기업이 성장하여 사회적가치를 확산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농촌식품분야를 특화하여 지역문제를 해결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충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은 지역 내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효과로 향후 일자리 500개, 유동인구 1,000여명으로 인구증가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5년에 청양읍 군량리 고추문화마을 일원에 조성되는 ‘청양군 사회적공동체 특화단지’와 충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이 연계하여 전 주기적 지원을 가능하게 하여 충남사회적경제 집적시설의 시너지효과를 배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입주를 고민하고 있는 충남 사회적경제기업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2025년 개관하는 ‘충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농촌형 사회적경제의 롤모델 실현으로 지역순환경제 및 지역재생의 큰 획을 그어 나갈 것을 확신합니다. 충남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전과 성과는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많은 관심과 입주부탁드립니다.

<기획운영팀> 쇼미더임팩트 그 이후

쇼미더임팩트! 서로의 본보기가 되다

한국특산물유통 - 박경호 대표

글 김진리 에디터



한국특산물유통은 취약계층 농가를 활성화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천연 조미료, 고구마로 만든 육포, 딸기를 넣은 쌀빵, 표고버섯을 넣은 버터 등 로컬 푸드를 활용해 부가가치를 올리는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부터 유통과 수출까지 전 과정을 책임진다. 2019년에 설립한 신생기업이지만, 멈추지 않고 사업을 확장하며 그와 동시에 사회적기업 인증까지 받은 성장세가 뚜렷한 조직이다. 박경호 대표는 한국특산물유통이 이토록 전도유명한 기업으로 성장한 데에는 쇼미더임팩트 참여가 큰 역할을 했다고 인터뷰 내내 힘주어 이야기했다. 쇼미더임팩트는 그에게 여러 그룹과 함께 할 수 있는 협업의 시너지를, 새로운 시각을, 잘 보이지 않았던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날개를, 계속 던져나갈 발판을 놓아준 기회가 되었다.

유통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기업을 어떤 사람이 어떤 이유로 이끌어 가는지 궁금했어요.

국회에서 정책보좌관으로 일하던 시절 전국 특산물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한국인이라면 누구든 들어봄 직한 지역 특산물 단체들이었거든요. 그런데도 다들 너무 힘들게 그 단체를 이어나가고 계신 거예요. 그 모습들을 보는데 우리 부모님이 생각나더라고요. 부모님께서도 농업을 해오시다 수입 농산물에 가격경쟁력이 밀리기도 하고, 잘못된 유통 구조로 결국 가업이었던 농업을 포기하셨거든요. 제가 실태조사할 때 가장 충격받았을 때가 있었어요. 농가에 어떤 지원이 필요하냐고 질문했을 때 농작물 매립비용을 지원해달라는 거예요. 조사가 끝나고 나서도 농가에서 연락이 많이 왔어요. ‘도와주세요.’ ‘너무 힘듭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제가 직접 해보자고 생각했어요. 부모님께 상의도 안 드리고 공무원을 그만두고 고작 140만 원 들고 창업을 시작했죠.

창업하고 처음 시작한 사업은 어떤 것이었나요?

전국을 방방곡곡 돌아다니면서 농가들과 미팅을 하고 처음 유통을 시작한 게 180개 제품이었어요. 반응이 꽤 좋았고, 이후에 산림청에 제안해서 네이버랑 같이 온라인 기획전도 만들게 되었죠. 농가에는 수수료를 일절 안 받고요. 그만큼 농가에 돌아가는 수익이 커지죠. 입점한 농가의 스토어 운영도 도와드리고 수출대행도 하고 있습니다. 7개 농가로 시작해서 지금은 75개 농가가 함께하고 있어요.

어려움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지금 기획전 규모가 연 매출 38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순이익이 천만 원이 안되는 거예요. 취약계층 농가의 수입이 줄지 않도록 사회적 가치를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우리 조직을 성장시킬 수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해결책으로 농산물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신제품 개발을 해보자고 정했죠. 가장 먼저 개발한 제품은 명이나물 페스토예요. 장아찌로만 먹던 작

물이잖아요. 젊은 층을 타겟으로 했는데 되게 반응이 좋았어요. 농가의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목표가 생기고 나서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에 들어갔어요. 그렇게 예비 사회적 기업 준비할 때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만나게 됐어요. 먼저 찾아와 주셔서요.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어떻게 알고 한국특산물유통을 찾았나요?

활동하다 보니 정작 우리 지역 특산품을 등한시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 본가가 충남 예산이에요. 충남에도 좋은 산물이 많을 텐데 지금까지 멀리서만 찾고 있다는 생각에 닿은 거죠. 본가로 와서 집에서 안 쓰는 컨테이너를 가지고 사무실을 차렸어요. 거기서 동네 삼촌들한테 “제가 한번 팔아볼게요.”라고 하면서 충남에서 사업을 시작한 게 먼저예요. 그러다가 센터에서 찾아와 주셨고, 쇼미더임팩트 참여도 권유받았어요.

쇼미더임팩트는 어땠나요? 기대하신 바와 실재가 어떻게 달랐나요?

로컬에서는 저처럼 농산물을 다루는 기업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서 네트워킹해보자는 차원으로 지원

했어요. 막상 가보니까 충남에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아주 다양한 기업들이 있더라고요. 놀랐죠. 다양한 기업과 네트워킹하게 되어서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IR이라는 걸 배워보고 싶었어요. 투자 제안 방법이나 효과적인 발표방식 그리고 일반 주식회사와는 다른, 사회적 경제 기업에 맞는 IR을요. 사회적 경제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도 많으니까요. 우리가 어떤 사회적 영향력을 창출하는지 효과적으로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걸 배우고 싶었는데, 쇼미더임팩트에서 확실하게 배웠어요. 그때 받은 컨설팅과 멘토링으로 기본기를 탄탄히 하고 나니, 그때가 벌써 2021년인데, 2024년인 지금도 든든해요. 앞으로 50년, 100년 사업을 이어가는 데 지표가 될 거라고 확신할 만큼이요.

쇼미더임팩트 참여 이전과 비교해 이후에 변화한 점이 있나요?

사업 영역이 엄청 넓어졌어요. 신제품 개발도 쇼미더임팩트 이후였어요. 이전에 우리 기업을 소개할 때는 “착한 의도를 갖고 온라인 기획전을 운영합니다.”뿐이었거든요. 그런데 쇼미더임팩트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바꿔야겠다고 착안한 거예요. 그래서 제품 개발, 생산, 수출 그리고 교육과 컨설팅까지

사업을 계속 확장해나가고 있어요. 지금은 예산에 저희 제품 생산 가공장을 건립하는 성과도 이뤘습니다. 그리고 함께 일하는 인력규모도 커졌어요. 사회적 가치에 관해 배우면서 지역의 경력단절여성 두 분을 채용하기도 하고요. 이제는 함께 일하는 사람이 모두 8명이예요. 과거에는 저 혼자 꿈을 꿔왔어요. 지금은 8명이 꿈을 꾸니까 그 사이즈가 확연히 다르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한국특산물유통의 궁극적 목표는 무엇인가요?

로컬 푸드를 활용한 신제품 개발 전문 기업이 되는 거예요. 한식 디저트 카페도 만들고 싶고요. 유통은 우리의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경로가 되는 것이고요.

새로운 목표를 응원하고 싶네요. 사업을 확장할 때 기술이 핵심일 것 같은데, 기술적 전문성은 어떻게 확보하고 있나요?

쇼미더임팩트에서 만난 기업들과 협업하면서 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어요. 특히, 나누어드림협동조합이라는 지역의 기업이 있는데요. 그곳이 한식 디저트 쪽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요. 나누어드림이 청소년복지센터로 시작한 작은 조직이었는데도 지역의 취약계층 문제를 풀기 위해 해나가는 일들이 아주 인상 깊었어요. 저도 그걸 보고 본받아야겠다 싶어서 경력단절여성분들을 채용했던 거예요.

쇼미더임팩트에서 협업할 기업들을 만났기에 가능했던 거네요.

그렇죠. 실천에 앞서 첫발을 떼기가 너무 어려웠거든요. 이 기업과 협업하게 되면서 빠르게 움직일 수 있게 됐어요.

요즘 힘든 일은 없으신가요?

예산사회적경제네트워크라는 하나의 협의체를 만들



었어요. 사업 내용도 공유하고 홍보도 하고요. 힘든 일이 있을 때 함께 강구하기도 해요. 처음에 만들 때는 여기에 합류하려고 하는 분들도 많았는데, 사회적 경제 쪽의 지원이 없어지고 나서 힘들어지다 보니 이제 활동을 활발히 하는 단체들이 꽤 없어졌어요. 아쉽죠. 그렇지만, 계속해나가는 분들도 많아요.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이 없더라도 저희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이 일을 계속 해나가 보려고 해요.

사회적 가치라는 단어를 많이 말씀해주시네요. 이 일을 하면서 가장 보람된 순간은 언제인가요?

대추를 키우던 농가의 사장님 내외가 두 분 다 여든을 앞두고 계셨어요. 판매할 수가 없으니 힘들게 농사를 지어놓고도 수확을 못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대추 따는 것도 도와드리고 대추로 캐러멜을 만들어서 농식품 콘테스트에서 상도 받았었거든요. 그분들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이 늙은이가 젊은 이들이 좋아하는 물건을 만들어서 인터넷으로 팔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요. 덕분에 핸드폰 쓰는 법도 알게 되고 젊은이들이 우리 거 맛있다는 리뷰 남겨줄 때마다 신기하고 흐뭇하다, 고맙다는 말씀도 하시고요. 저한테도 큰 힘이 되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들이 수익이나 매출액 같은 숫자로 찍히지는 않지만요. 사회적 가치라는 말을 잊어버릴 때마다 이런 이야기들이 동기가 되어서 방향을 다시 잡고 사업에 상상력과 힘을 더해주는 것 같아요.



<SVI 지표별 컨설팅 그후>

SVI 지표별 컨설팅, 우리의 사업을 알아가는 과정

사회적협동조합 새동네 인터뷰

글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기반조성팀



소개 부탁드립니다.

충청남도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적협동조합 새동네입니다. 우리 사회적협동조합 새동네는 '삶의 대안이 되는 복지공동체 실현'을 목표로, 지역농산물 공유작업장을 운영하여 취약계층의 부가소득 창출과 마을인프라 구축 등 지역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이 스스로를 살피고 돌보는 지속가능한 복지공동체를 마련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판매와 지역농산물을 정선(精選)하여 식당이나 병원 급식소 등에 납품을 하는 일을 하고 있으며, 지역과 농촌의 취약 계층에게 통합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가치측정 교육을 받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작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발간한 '2021년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기업 평가 보고서'는 SVI(Social Value Index)측정을 통해 사회적기업을 탁월 및 우수 기업으로 등급화하여 보여주었습니다. 초기에는 SVI 측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했으나, 현재는 각 지표별로 정량화 및 정성화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에서 열린 사회적경제 박람회에서 SVI 홍보 및 안내 부스에서 자료집과 안내를 받으면서, SVI 측정 및 지원 방향이 많이 변경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과거에는 사회적기업의 양적 성장이 주로 이루어졌다면, 현재는 질적 성장을 위한 변화의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질적 변화 속에서 사회적 가치와 창출에 대한 측정과 평가를 위한 지표들이 궁금해졌습니다. 그리고, SVI 측정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어 교육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가치 측정 교육을 받고 지표별 컨설팅까지 받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교육을 통해 단편적으로 생각했던 SVI에 대해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세종충남통합센터의 김대열 센터장님이 진행해주신 SVI 지표 이해 교육을 통해 SVI의 세계적인 추세와 유엔 등에서의 권고안,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에 따라 협약을 맺는 과정에서 국내·외적으로 현재 상황에 대한 설명을 잘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교육 덕분에 전체적인 숲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SVI 지표는 일상적인 용어가 아니라 다가가기 어렵지만, 선별 지원을 통해 인센티브나 우선적인 혜택을 준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교육에서는 사회적 가치를 기업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고 하지만, 제 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전문적 조언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컨설팅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교육과 컨설팅 후 직원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교육과 컨설팅 후 직원들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새동네는 사업을 시작한지 얼마 안 된 신생기업으로, 사회적경제 기업으로서 첫 발을 내딛은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SVI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이번 교육과 컨설팅을 통해 SVI에 대한 이해도가 크게 높아졌습니다. 또한 SVI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SVI가 먼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기업이 하고 있는 활동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사회적 가치로 전환할 수 있는지 찾아가는 과정임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교육과 컨설팅을 통해 앞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잡는 데 필요한 나침반 같은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교육과 컨설팅으로 사회적 가치의 지향점을 좀 더 세밀하게 다듬어 감으로써 자생력을 갖춘 기업이 될 것이라는 희망이 생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기업이 얻은 구체적인 성과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SVI 신청서를 작성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작년도 실적이 없어서 신청을 못했지만, 현재 우리 기업의 상태 및 개선점을 파악하고 부족한 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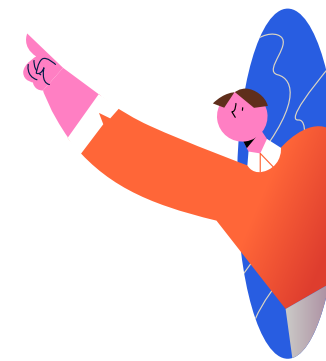
새동네는 SVI 컨설팅을 통해 두 가지 충족 조건을 확인했는데, 하나는 사회적기업 경제기업과의 협력 수준과 지역사회와의 협력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가치 추구 부분에서는 미션 및 비전 기준을 세밀하게 정하지 못한 점이 있었고, 이번 기회를 통해 외부 자문을 받아 초심으로 돌아가 다시 작성하려고 합니다.

또한 기존에 하고 있는 활동 중에서 사회적 가치가 있는지 몰랐던 부분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컨설팅을 통해 알아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기업의 활동이 사회적 가치가 있는지, 없다면 사회적 가치가 있는 활동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더 커졌습니다. 우리 기업의 핵심 미션 중 농촌지역 활성화 부분에서 돌봄공동체, 지역사회 통합 돌봄 체계는 추후에 기업이 좀 더 안정화되면 이루어질 영역이라 생각했는데, 이러한 부분까지 초기부터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리하자면, 가장 큰 성과는 기업의 운영 상태와 놓치고 있던 부분들의 개선점을 찾아 기업을 내실화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조직이 계속 나아가기 위한 미션과 핵심 가치를 다시 한번 돌아봄으로써, 우리의 인식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현재 사회적 경제가 어떤 지점에 와 있고 어떤 지향점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SVI 측

정 지표에서 어떤 점을 점검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게 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가치 측정 교육과
지표별 컨설팅을 다른
사회적기업들에게 추천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함께 추구할 수 있다는 점은 큰 장점입니다. 사회적경제가 아직은 정부 의존도가 높은 현재의 상황에서 가치 측정까지 해야 한다는 점이 부담스럽지만, SVI는 우리의 활동들을 확실히 알아가는 하나의 도구와 과정으로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기업이 지향하는 커뮤니티 케어와 지방 소멸 등에 맞는 사례 및 네트워킹, 자료 등 도움을 받았습니다. 전문가의 조언과 정보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매우 소중한 사회적 기업으로 진출하려는 기업이 있다면 이러한 기회를 꼭 활용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이는 기업의 성장과 내부동력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회적 경제 기업이라면, 우리가 하고 있는 활동에 대해 사회적 가치만 확실하다면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합니다. 사회적 가치를 명확히 하고 이를 기반으로 활동을 전개한다면, 중요한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모두애(愛)마을기업 선정>

마을과 기업, 모두애(愛)게 힘이 되는!

충남 운산하우스달래협동조합 소개

글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마을기업팀

행정안전부는 매년 지역자원을 활용해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고 지역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는 마을기업을 대상으로 우수 및 모두애(愛) 마을기업을 선정·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24년 충청남도에서는 운산하우스달래협동조합이 모두애(愛)마을기업으로 선정돼 사업비 약 1억 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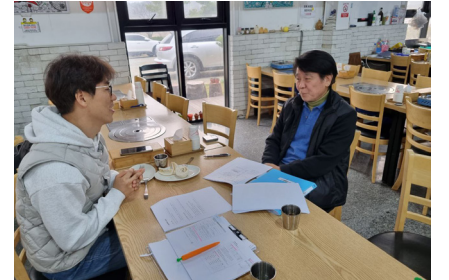
모두애(愛)마을기업이란 공동체성이 높고 지역공헌 활동 등 마을기업 가치를 실현하여 마을기업의 정체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성장 기반을 갖추고 전국적으로 확산 가능한 잠재력을 보유한 마을기업입니다. 모두애(愛) 마을기업으로 선정되면 제품 개발·기반 설비 확충·홍보·마케팅 등을 위한 사업비 지원, 홍보 및 판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두애(愛) 마을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많은 단계를 거칩니다. 먼저 시·군에서 충남도에 기업 추천을 합니다. 충남도에서는 심사를 거쳐 행정안전부로 서류를 올리고, 마을기업에 방문하여 현장실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이 됩니다.

이번 선정된 운산하우스달래협동조합은 지역의 농산물을 활용한 찹쌀떡, 두부, 인절미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로컬푸드마켓에서는 농산물의 직접 구매도 가능하고, 바로 옆 식당에서는 협동조합에서 생산한 두부를 활용한 음식을 먹을 수 있어 방문객들에게 인기가 좋습니다. 특히, 일용근로를 포함하여 연 180여 명을 고용함으로써 지역 내 일자리 창출에도 큰 역할을 하는 마을기업입니다.

이번 모두애(愛) 마을기업 선정을 통해 마을과 기업, 모두에게 힘이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합니다.



심사과정



충남사회적경제센터의 마을기업팀은 마을기업의 단계별 육성지원을 위해 찾아가는 설명회, 컨설팅, 필수교육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마을기업 진입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충남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마을기업팀으로 연락주세요.

☎041-406-8132~4



사회적경제 창업교육, 소셜그라운드 프로젝트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2023년부터 사회적경제 기업 예비 창업가를 발굴·육성하는 교육을 처음으로 진행했습니다. 1년 동안 사업을 진행하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고, 그 결과 예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에 4개 팀을 진입시키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창업 교육 과정만으로는 예비 창업가들을 사업화까지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어렵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더불어 시군 및 광역 차원에서 다양한 사회적경제 창업지원사업이 각자의 목표 달성만을 위해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및 소셜벤처 경연대회 등 예비 사회적기업자를 발굴하는 지원사업들의 갑작스런 공백에 대한 대응도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경험과 환경적 변화를 반영하고 전국 사례조사 결과 경기도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새로운 창업 지원체

계를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2024년에는 충남 사회적경제 창업지원 트랙인 '소셜 그라운드 프로젝트'를 구축했습니다. 소셜 그라운드 프로젝트는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와 공동으로 주관하며, 시군 행정 및 중간지원조직과 연계하여 7개 시군에서 기초 창업교육을 시작으로 사업 구체화를 위한 부트캠프, 지역 멘토 멘토링, 우수팀 시상을 위한 데모데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업화 자금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미창업자와 창업 2년 이하의 초기 창업자를 대상으로 4월부터 모집을 시작해 최종 67개 팀이 선정되었습니다. 시군 창업교육은 천안, 홍성, 부여, 서산, 서천, 태안, 논산 등 7개 시군에서 환경, 로컬, 돌봄 등 다양한 지역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창업가들이 모여 기초 학습을 진행했습니다.

6월 22일부터 23일까지는 40여 개 팀이 모여 선배 창

업팀 탐방, 우수 사례 청취, 피칭 기술 코칭 및 피칭덱 만들기, 멘토링 및 모의 피칭 등 창업팀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통합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이는 예비 창업가들에게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으며, 서로의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협력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부트캠프 이후에는 사업 아이템 구체화, 데모데이 준비를 위한 발표 자료 제작, 피칭 기술 향상 등을 목표로 팀별 1:1 멘토링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회적경제와 창업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가진 지역 멘토와 팀을 연계하여, 팀당 2~3회의 멘토링을 제공했습니다. 멘토들은 단순한 컨설팅을 넘어 각 팀의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데모데이를 함께 준비하는 팀원으로서 길잡이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7월 26일에는 각자의 소셜 미션을 바탕으로 구상한 사업 아이템을 발표하고 평가받는 데모데이가 개최되었습니다. 총 11개 지역의 18개 팀이 참가했습니다. 임팩트 투자기관, 충청남도, 엑셀러레이터, 한국중부발전 등 여러 분야의 심사위원분들을 모셔 평가를 통하여 총 7개 팀을 선정하여 최우수상(충남도지사상) 1개팀(500만원), 우수상(중부발전 사장상) 2개팀(각 200만원), 장려상 4개팀(각 100만원)들에게 시상을 진행하였습니다.

소셜그라운드프로젝트는 데모데이 참여 팀들을 대상으로 사업화 자금 지원 사업인 '소셜그라운드 G트랙'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역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아

이디어와 열정으로 시작한 팀들이 이제 사업화를 앞두고 있어 긴장되면서도 설렘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업화 이후에도 사회적경제기업 진입, 자원 연계 등 지속적인 지원할 예정입니다.

창업의 처음과 마지막을 모두 지원하는 첫 시도라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이를 보완해 나가며 충남 사회적경제 창업 지원사업이 하나의 브랜드로 성장할 것을 기대합니다. 이를 통해 충남의 사회적경제가 더욱 활성화되고, 새로운 사회적 기업가들이 지속적으로 발굴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최우수상 수상팀

오른 우분 활용 친환경 플라스틱 대상 생분해 퇴비 제작

우수상 수상팀

부여까치마을

잉여농산물, 농업부산물등급별활용프로세스구축및판매

당신에게온마음 동물교감 치유상담 프로그램 운영

장려상

공예마실 플라스틱 업사이클링을 통한 디자인 제품 제작

행복한남포 지역 농산물 활용 로컬 팜 카페 운영

제이비프로덕션 QR코드를 활용한 반려동물 안전망 시스템 '펫가드'

펫밀리 동물복지 증진을 위한 수제간식 사업



<경영지원플랫폼 씨앗(see:at) _전문상담서비스우수사례>

충남사회적경제 기업 경영 지원의 씨를 뿌리다

더부러주식회사 - 조재웅 대표



더부러주식회사는
어떤 곳인가요?

더부러주식회사는 2015년 이후 지역사회 복지 후원 및 장애인 생활 개선 지원을 위해 88,359,000원을 후원하며 지역문제 해결 및 취약계층 고용을 통한 사회적가치 달성을 위해 힘쓰고 있는 사회적기업입니다.

조재웅 대표는 당진시 사회적기업협의회회장을 역임하면서 당진시 사회적기업의 양적·질적 성장을 위해 노력한 결과 2024년 현재 100여 개의 사회적경제기업으로의 확대 및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어떤 전문상담서비스를
받고 계신가요?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 센터)와의 전문상담은 2021년 더부러주식회사의 문서파쇄용 기기 계약상 문제에 따른 법률상담으로 시작했습니다. 계약문제가 원만히 해결된 것을 계기로 전문상담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기업 내부 운영의 체계화를 위한 동행컨설팅 및 사업 분야 확장을 위한 컨설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업 내·외부를 점검하고 개편하는 과정을 함께 하였습니다.

유선, 이메일, 대면 등의 방법으로 사실관계에 대한 명확한 확인과정을 거쳐, 기업이 대응할 방향에 대한 맥을 짚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단순 1회성 상담이 아닌 4개월에 걸친 전문컨설팅을 통해 변호사, 법무사,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HR전문가 등이 직접 방문하여 현장확인을 통한 맞춤형 컨설팅 제안을 해줌으로써 그 효과가 즉시 발생할 수 있어 기업경영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센터에서 제공하는 전문상담서비스 및 컨설팅 과정을 통해 기업은 계약에 따른 손해 발생 예방(추정치 4천만원), 내부 운영 정비를 통한 기업 비용 절감(추정액 4천만원 이상), 사업컨설팅 협업을 통한 사업수주액(1억원) 등 총 1억8천만원에 이르는 직간접 효과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컨설팅 현장

전문상담서비스의

구체적인 성과가 있다면?

SVI 우수성과 달성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사회적가치평가에 적극 참여하여 센터에서 진행하는 SVI 관련 교육 및 컨설팅을 이수하고, 평가한 결과 ‘우수’등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그 동안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기업의 노력을 평가받았다는 의미로, 실제 기업운영에 있어서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협업에 의한 사업수주

당진시사회적기업협의회장을 오래 맡으면서 당진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전개하였습니다.

센터에서 제공하는 사업 중 시군 네트워크 강화사업(넛넌이야)을 통해 당진시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끈끈한 유대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고, 이러한 네트워킹 강화를 기반으로 2023년 하반기 당진시-당진시의회-당진시사회적협의회 3자가 참여하는 사회적경제 이해교육을 센터와 함께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 동안 사회적경제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교육으로, 향후 당진시 사회적경제 중간지원 전담인력을 배정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 네트워크와 센터와의 협력의 중요성을 새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당진시에 소재하고 있는 더부러주식회사, 주식회사 단미소, 주식회사 아이엔의 협업을 통해 한국동서발전 당진화력본부와의 ESG경영 참여사업을 공동 수주하여 사회적기업 간의 협업을 통한 사업수주를 이끌어 내기도 하였습니다.

사업다각화 및 광역화

더부러주식회사의 사업다각화 및 광역화를 위해 경기도에 위치하고 있는 주식회사 메디로직스와 협력하여 당진지사를 설립하고, 전문컨설팅 및 인적 자원 연계 등을 통해 보건복지부 스마트 사회서비스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당진시에서 사업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기업의 생존을 위한 경쟁을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의 먹거리를 발굴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사업확장 및 기업의 규모화를 달성할 수 있기에 더부러주식회사의 스케일업에 좋은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직원복지 및 복리후생 개선 및 성과

사회적기업의 존재 목적과 미션은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기업의 노력에 있습니다. 외부문제에 대한 대응과 함께 기업 내부에서의 운영 개선을 통한 이익의 공동분배는 중요한 이슈 중 하나입니다. 기업 이윤의 확대 및 기업비용의 절감에 따른 결실은 근로자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최선의 가치입니다. 더부러주식회사의 기업활동을 통한 이익은 근로자의 복지 확대로 이어져 근로자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한 루프탑 휴게실 설치, 성과급 확대 지급, 산업안전비용 투자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센터를 통해 10여회 걸친 전문상담서비스 및 컨설팅 전문인력의 자문을 기업 운영에 반영하여 내부조직의 안정을 꾀하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난 10여년 간의 사업운영 과정에서 지속적인 성장과 도약을 위한 노력으로 항상 스스로를 점검하고, 센터의 전문상담 연계 서비스를 활용한 기업의 영업활동을 위한 안정적 기반구축은 수익확대와 근로자 복지 증진 및 지역사회 공헌활동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그 성과로 2023년 충남사회적경제한마당에서 충청남도지사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더부러주식회사의 우수한 지역사회 공헌활동은 기업 대표자의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신념과 기업의 미션, 수익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외부자원 연계의 적절한 조화로 이루어진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경영지원플랫폼 씨앗(see:at)이란?

씨앗 플랫폼은 충남 사회적경제기업들에게 다양한 경로의 지원사업 소식들을 제공하고, 컨설팅, 상담, 교육 등을 제공하기 위한 경영지원 플랫폼입니다.



<신규 예비사회적기업을 소개합니다>

치유와 회복의 숲이 되고 싶어요

힐링숲터사회적협동조합



기업을 소개해주세요.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에 위치한 힐링숲터사회적협동조합이라고 합니다. 공주시에 치유농업을 위한 힐링농장을 만들고자 2022년 텃밭을 조성하였고, 대전과 공주에서 공공기관과 학교를 중심으로 원예치료 및 숲해설 프로그램을 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업은 주로 정서적·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원예치료와 숲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취약계층들, 장애인, 노인, 유아, 아동, 청소년, 폭력피해자, 중독회복자를 만나기도 하고 감정노동자 직무연수 등 많은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산림청과 복권위원회,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진행하는 녹색자금공모사업을 시작하여 취약계층을 위한 안전한 숲나들이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진입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취약계층을 위한 정서지원사업의 사회적인 가치에 집중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법인을 운영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투자 사업을 통해 저희의 사업들을 집중적으로 시도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기업이 추구하는 사회적가치는
무엇인가요? 지역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계신가요?

식물을 매개로 한 회복의 시·공간을 만들고 싶습니다. 원예치료 수업을 듣던 특수학급 학생이 있었는데요. 부모님과의 관계가 소원했는데, 어느 날 원예수업을 듣고 집으로 화분 하나를 가져가게 되면서, 조금씩 이야기를 하고 소통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식물을 매개로 하여 마음을 열고 대화를 시도 한거죠. 저희의 활동이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점이 정말 보람찬 순간이었습니다.

지역 내 사회적 경제의 네트워킹도 진행 중입니다. 작지만 알찬 사회적기업들과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 새로운 기회를 도모하는 방식으로요. 또한 치유가 필요한 현장에 직접 나아가는 맞춤형 수업으로 식물의 가치가 주는 환기와 에너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으로써 앞으로의
다짐이나 기업의 방향성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사회적가치를 추구하지만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이윤을 남겨야 하는 것이 사회적기업의 또다른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환원을 실천할 수 있는 기업경영에 관하여 늘 고심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네트워킹을 통한 사회적경제기업 협력사업도 그중 한 가지이고요.

저희 힐링숲터사회적협동조합은 치유농업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고, 식물을 통한 에너지를 전달하는 일에 힘쓸 것입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이 되고 싶습니다.

<마을기업을 소개합니다>

스스로의 삶을 돌보는 마을 만들기

마을기업 정동영농조합법인

마을기업 정동영농조합법인을 소개해주세요

부여읍 정동 1·2리 주민들의 화합으로 마을공동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40%가 가입하고, 90대 고령 주민도 조합원으로 가입한 우수마을 기업입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부여군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마을단위 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사회 유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조성, 경관개선 및 도농 교류 등 활성화를 도모하여 주민의 화합과 권역발전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동어울림센터를 개관하고, 2017년 2월에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여 마을의 발전을 위한 소득 창출을 계획하고 실행해 왔습니다.



마을에서 어떤 제품을
만드시나요?

마을 주민들과 먹거리를 함께 만들고 있습니다. 국산콩을 씻어 불려 갈아서 가마솥에 끓인 다음 간수를 넣고 물기를 짜는 전통방식으로 손두부를 만듭니다. 두부 제조과정은 꽤 오랜 시간과 노력이 들어갑니다. 콩물과 간수의 조합이 잘 맞아야 맛있는 두부가 나오는데 비율과 온도, 젓는 속도, 시간 등 맞추는 게 비법입니다. 정성과 노력의 가치도 큰 데다 우리 땅에서 자란 콩으로 만든 두부는 맛과 영양도 그만큼 믿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정동영농조합법인이 생산한 두부는 너무 딱딱하지도 않고 너무 물컹거리지 않으면서 적당한 굳기와 부드러운 식감을 지니고 있어 맨입으로 먹어도 좋습니다. 두부 판매는 '와쌈 국산콩 손두부'란 이름으로 부여 관내 로컬푸드 매장에 입점되어있고, 마숨몰 등 온라인에서도 반응이 좋아 점차 온라인 택배 물량도 늘려갈 계획입니다. 마을 주민들이 합심해서 좋은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고령층 주민들이 마을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만나 즐겁게 정직하게 생산하는 두부입니다.

마을이 추구하는
사회적가치는 무엇인가요?

주민 스스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게 될 것으로 생각되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마을 공동체 활성화와 주민들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 지역 경제 발전에 영향을 주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며, 여성 및 노인등 취약 취약계층의 참여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운영하며어려운 점이 있다면?

작업하시는 어르신들이 연세가 많아(80세) 작업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능률이 오르지 않아 어렵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필요시 젊은 분들을 아르바이트로 고용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수익성이 떨어지는 것이 제일 안타깝습니다.

앞으로의 다짐을 말해주세요

이제 와쌈 메주를 활용하며 부여군 10미를 활용한 고추장 생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품의 생산 및 판매에 주력함으로 운영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좀 더 지역에 도움이 되고, 공동체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법인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협동조합을 소개합니다>

“환경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협동조합 온양실험실



기업을 소개해주세요.

기업이 판매하고있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진입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업이 추구하는
사회적가치는 무엇인가요?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하나만
소개해주세요.

앞으로의 다짐이 있다면?

협동조합 온양실험실은 아산시의 온양원도심 지역에 있다가 행정
안전부 청년마을 사업과 함께 아산시 도고면 지역으로 이전하여 현재
까지 도고 지역에 사무실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5명이 조합원
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구성원 스스로 잘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조합에
기여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환경교육, 문화기획, 업사이클링 체험활동을 주로 합니다. 또 지역
에서 제로-웨이스트샵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함을 꿈꾸는 로
컬크리에이터를 꿈꾸고 있어요. 환경문제를 중심으로 지역의 지속가
능성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환경동아리로 출발하였습니다. 그 당시 아산시 청년위원
회를 함께하던 5명의 청년이 거대한 담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우
리 주변의 작은 변화를 꾀하고자 만들었습니다. 리더가 있거나 주도권
을 갖기 보다는 모두 동등한 위치에서 각자의 생각을 정리하고 모여 실
험하던 동아리였기에 주식회사 형태가 아닌 협동조합 형태로 법인전
환이 이뤄지게 되었습니다.

환경문제의 해결을 가장 큰 사회적 가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
역에서 쉽게 버려지는 폐자원을 재활용하는 업사이클링 작업들을 하
고 있고요. 환경교육도 진행합니다. 환경적 가치가 있는 상품을 판매하
는 제로-웨이스트샵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환경문제를 인식하고 삶의 방식을 조금이나마 개선하는 도움이 되고
싶어요.

지역의 한 병설유치원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한 아이가 직접 만
든 작은 가방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거기에 ‘환경을 지켜주셔서 감사하
입니다’라는 편지가 써져 있었어요. 그 경험이 현재까지 큰 원동력이 되
어주고 있어요.

꾸준히 해나가고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조합원들과 함께 조금
씩이라도 성장하면서 지역의 변화를 만들고 싶어요.

<청년 사회적경제 서포터즈, 그 이후>

사업 참여자에서 충남 사회적경제인으로,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 양채정 대리

글 김진리 에디터



지금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사업의 한 축으로 기획해 활발히 활동 중인 한울기자단. 이 전신에는 청년 사회적경제 서포터즈가 있었다. 대학생들이 인턴으로 참여해 충남 사회적경제의 홍보 업무를 담당했다. 사회적경제를 직관적이고 쉽게 알려주는 카드뉴스들. 사회적경제 상품의 언박싱이나 로컬푸드로 만드는 레시피 영상 등이 돋보였다. 트렌드를 반영하는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사회적경제 영역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사회적경제를 널리 알리게 된 것은 물론, 이들에게 좋은 반응까지 끌어냈다. 서포터즈 1기로 활동을 맡아 했던 양채정 씨를 만났다. 그는 대학을 졸업하고 어느새 어엿한 사회인이 되어 있었다. 늘 한결같이 충남 사회적경제를 지지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채정씨의 단단한 목소리가 인상 깊었다. 사회적경제라는 영역으로 뭉쳐진 그와 이 지역의 성장이 엮보였다.

별명이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이하 충사넷)의 온실 속 화초라고 하던데요? (웃음)

제가 우리 기관에서 제일 막내거든요. 다들 우쭐쪼 하면서 화초처럼 저를 기르고 계세요.(웃음) “우리 채정이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다해.” 하면서요. 그럼 저는 또 거기에 힘입어서 폭격기 같이 할 말을 다 합니다.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가진 일터 같아 보이네요. 폭격기 같을 땐 서로 어떤 이야기를 나누시나요?

정부정책 영향으로 사업이 많이 폐지된 상태예요. 제가 협동조합 지원 업무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협동조합을 위해 진행되는 사업이 설립교육밖에 없어요. 인력은 저밖에 없고요. 지금 충남에 협동조합이 1천여 개가 넘는데도요. 어떻게 사업을 이어나가고 어디서 지원을 따와서 우리 역량을 키울 수 있을지에 관해서 이야기하죠.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화초일지는 몰라도 이곳이 온실 같지는 않은데요. 올

해로 3년 근속하셨다고 들었어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계속 남아서 일을 해나가려는 이유가 있나요?

걱정이죠. ‘나까지 나가게 되면 누가 우리 충남 협동조합들을 지원하지?’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 같아요. 좋게 말하면 사명감이고요. 이곳이 제게는 절박한 밤줄이기도 합니다.

사회적경제 영역으로 들어오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대학 때 주전공이 노인복지였고. 복수전공으로 사회적경제를 배웠어요. 이론으로만 사회적경제를 배우는 것에는 한계가 많다고 느껴졌어요. 더 가까이, 생활 속에서 직접 느끼고 실천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는 뭐가 있을까 생각했어요. 그때 사회적경제 서포터즈 사업을 알게 된 거예요.

수업들이 감명 깊었나요? 왜 생활 속에서 직접 느끼고 실천하고 싶다고 생각했나요?

제로웨이스트라는 단어가 사람들 입에 자주 오르내릴 때였는데, 사회적경제를 배우기 전에는 이게 사



회적경제 분야인지도 몰랐거든요. 수업에서 알맹상점 같은 제로웨이스트숍 사례도 듣고 우리 집에서 쓰는 설거지바 브랜드도 보고 하니까 ‘아, 나도 생활 속에서 사회적경제 하고 있었네.’ 라는 기쁜 마음이 들었어요. 더 나아가서 내가 해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지를 고민하게 된 거예요.

실제로 서포터즈 활동을 시작하고 나서는 어땠나요?

인턴으로 홍보 업무를 주로 했어요. 포럼이나 교육에 관한 카드뉴스들을 만들고, 사회적경제 제품 홍보활동을 했어요. 일도 많이 배웠지만, 진짜 재미있었어요. 여기 충사넷으로 취직하고 나서 서포터즈 만들고 싶다고 자주 의견을 냈을 정도로요. 학교에서 배울 때보다 사회적경제에 관해서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어요. 막연한 개념이 옆집 친구처럼 느껴졌을까요? 서포터즈 사업 참여가 끝난 뒤에도 길을 지나면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이런 단어들을 볼 때마다 괜히 더 반갑고, 인터넷에 무슨 일하는 기업인지 검색해보기도 했던 기억이 있네요. (웃음)

활동하면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다면요?

제품 홍보영상 촬영했을 때 기억이 많이 나요. 제품을 홍보하기위해서 기업들의 협찬을 받아야했거든요. 다들 흔쾌하게 너무 좋다고 하시면서 선뜻 제품



들을 보내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먼저 발 벗고 나서서 이거 보내주겠다, 저거 보내주겠다... 엄청 도움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사경이 이렇게 참 따뜻하구나, 생각했어요. 그리고 촬영 날도 기억이 많이 남아요. 유튜브라는 매체를 접하는 건 처음이기도 해서 잘 몰랐거든요. 금방 찍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침 댓바람부터 저녁에 해질 때까지 다 같이 엄청 고생하며 찍었었어요. 함께 일하던 서포터즈 멤버들이랑 또 센터 직원분들과 돈독해질 수 있었던 계기였어요.

영상을 찍고 나서 반응은 어땠어요? 기대한 목적을 달성하셨나요?

유튜브에 업로드 된 영상에 댓글도 많이 달렸고요. 반응이 좋았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도, 센터 채널에서 조회수가 높은 편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게 연이 되어 사회적경제 영역으로 취직까지 하셨는데요. 대학 시절 복수전공이 노인복지라고 하셨는데, 복지 관련으로 취직할 생각은 하지 않았나요?

대학생 때 복지관으로 실습을 갔어요. 거기서도 비슷하게 실습생들에게 사업구상을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실습생들이 젊으니까 기대를 많이 한 것 같았어요. 새로운 걸 얼마든지 계획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준비해서 기존 복지관에서 안 하

던 것들로 기획안을 써갔는데 리스크가 크다는 이유로 결국 복지관에서 매년 하던 캠페인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보수적이라고 느꼈어요. 그런데 같은 시기에 사회적경제를 배우고 서포터즈도 하면서 이게 얼마나 요즘 시대에 맞는 콘텐츠인가 싶었던 거죠.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해볼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았어요. 열려 있다는 감각이요. 복지 현장이 잘 맞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사회적경제가 제게 더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포터즈 활동이 진로를 결정해준 결정적 계기가 된 거군요.

인적자원들을 많이 얻게 해준 기회가 되었고요. 지금 충사넷에 취직을 할 때 제 경력의 큰 부분을 담당해준 성과도 있었죠. 서포터즈 아니었으면 사회적경제 안했을 거예요. 그 정도로 저한테는 의미 있어요. 세상이 따뜻하다고 느끼게 해준 경험이었어요.

충남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어떤 사람으로 남고 싶나요? 앞으로의 계획도 궁금합니다.

어려운 질문이네요. 저는 늘 한결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어떠한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요. 전화 응대를 할 때도 그래요. 다양한 분들이 전화를 걸어오거든요. 남녀노소 누가 전화를 걸어와 좋은 말이든 불평을 토로하든 저는 언제나 한결같이 전화를 받아요. 동료들이 저를 신기하게 보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딱히 감정이 요동치지 않는 사람이고 앞으로도 그럴 거 같아요.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면서 이 조직이 지역 안에서 다시 한번 제대로 역할 할 수 있도록 늘 이 자리에서 충남의 사회적경제 기업들을 지지하고 응원하고 싶어요.



한울기자단을 소개합니다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기반조성팀 유재우 매니저

사회적경제 홍보지원단 '한울'은 사회적경제를 학습하고 체험하며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의 긍정적 인식확산을 위한 활동을 하는 홍보지원단으로 충남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 및 충남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로 구성되었습니다. 활용하는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카드뉴스, 영상 촬영·편집, 글쓰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충남도민들에게 사회적경제를 알릴 수 있는 홍보물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한울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도, SNS 활용 능력, 창의성, 협업·소통 능력 등의 평가 기준에 따라 서류평가, 면접 평가 2단계에 걸친 선발 과정을 진행하였으며 최종 10명의 홍보지원단이 선발되었습니다.



1Day



2024.4.19.(금) 한울의 첫 활동으로 오리엔테이션 및 사회적경제 기본교육 시간을 가졌습니다. 첫 활동 날인 만큼 서로가 친해지기 위한 아이스브레이킹 시간과 앞으로 진행될 저희 한울의 계획과 진행 방법 등을 안내하는 시간을 가졌고 우리의 목표인 사회적경제 홍보를 위한 사회적경제 기본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누구라도 교육 시간은 지루하기 마련이지만 열심히 집중하며 수업을 들어주는 회원들의 모습을 보며 든든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2Day

한울의 2차 활동은 충남 공주에 있는 공주시청청년센터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회원들이 사는 지역에서 활동 중인 사회적경제기업을 찾아보고 조사하여 다른 회원들에게 소개를 해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시간에 즐거운밥상, 이플아토, 꿈 해비타트 등 본인들이 열심히 조사해 온 기업들을 발표하였습니다. 우리 주변 가까이에 다양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활동 중인 것을 알려주고 어떤 좋은 활동을 하는지를 알아보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발표를 모두 마치고 'SNS 마케팅 전략 실무와 AI활용'이라는 주제로 전문 강사님께 강의를 받았습니다. 한울 모두가 SNS 활용 능력이 우수한 이들로 선발이 되었지만 보다 나은 홍보활동을 위한 심화 교육을 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후 한울기자단은 사회적경제기업 인터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리뷰 등 매월 직접 학습하고 체험한 활동 경험을 기반으로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 홍보물을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홈페이지와 회원들이 운영 중인 SNS 채널을 통하여 업로드 할 예정입니다. 충남의 사회적경제가 궁금하신 분들, 한울의 활동 과정이 궁금하신 분들은 센터 홈페이지에 올라올 홍보물들을 기다려 주시고 앞으로의 활동에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천안 독립기념관 5월의 플리마켓, 따숨마켓

한울기자단 1기 김민하



5월 6일에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5월 따숨마켓에서 사회적 경제 홍보 부스 봉사자로 다녀왔어요. 한울 1기로서 진행하는 첫 번째 활동이었어요. 늦을까 봐 미리 노선을 찾아봤는데, 천안터미널에서 출발하는 버스뿐 아니라 천안 독립기념관으로 가는 시내버스도 자주 있더라고요?! 시내버스를 타고 따숨마켓을 진행하는 천안 독립기념관을 찾았습니다. 따숨마켓은 지역을 따뜻하게, 지역에 숨을 불어넣는다는 의미로 충남 사회적 경제 기업들의 제품, 체험부스를 경험할 수 있는 가치소비 플리마켓입니다. 플리마켓을 좋아하는 저는 이전에 따숨마켓에 대해 들어는 봤지만, 직접 가보지는 못했는데요. 이번에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홍보 지원단 한울로써 따숨마켓을 드디어 가보게 되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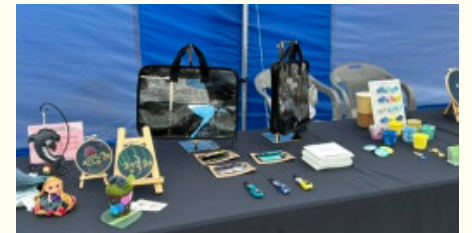
조금 일찍 도착한 따숨마켓엔 한참 부스가 준비 중이었는데요. 충남의 다양한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제품들을 보고 시식할 수 있어 더 즐거웠던 플리마켓이었어요. 따숨마켓이 충남 사회적 경제 기업들의 제품들이 모인 만큼 천안 외에 기업들의 제품들도 볼 수 있었는데요. 공주의 사회적기업들이 '밤'을 이용한 제품들을 판매하는 것을 보았어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 공부할 때 로컬푸드를 활용해 지역의 지속 가능한 지역 먹거리 체계를 구축하는데 힘쓴다는 것을 배웠는데, 로컬푸드를 활용한 제품들을 직접 보니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더 와닿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제가 봉사했던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부스에선 어린이를 대상으로 탄소중립과 관련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영상을 보고 탄소중립 서약서를 작성하면 핀볼 게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다! 핀볼 게임의 상품은?! 홍성의 초록이 동지 협동조합의 지역주민들이 직접 재배한 쌀로 만든 쿠키와 협동조합 온양 실험실에서 아산지역의 폐플라스틱을 수거하여 만든 제로 웨이스트 키링이었어요!! 상품도 너무 알차지 않나요?!?



이 외에도 중고의류를 교환할 수 있는 부스, 중고상품이나 재활용품들을 제로 웨이스트 상품으로 교환할 수 있는 부스도 있었습니다. 저는 따숨마켓에서 사회적기업들의 제품들만 판매하는 줄 알았는데 다양한 협동조합들의 제품들을 체험할 수 있는 부스들을 보며 다음 따숨마켓에는 이용자로 방문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5월 따숨마켓은 키즈 플리마켓도 함께 운영되었어요! 실제로 플리마켓의 중앙 자리에 키즈 플리마켓이 운영되었는데, 키즈 플리마켓도 인기가 많아 구경을 가보니 모든 물건을 단돈 1,000원에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키즈 플리마켓이라는 이름에 맞게 함께 한 부모님들이 어린아이들에게 마켓을 맡겨놓으셨는데, 너무 귀여웠던 아이들 ㅎㅎ 직접 플리마켓을 운영했던 시간들, 아이들에게는 너무나 특별한 경험들로 남았겠죠?

저는 5월의 따숨마켓을 체험해 보고 아이들과 함께 가면 좋은 플리마켓 중 하나라고 생각했어요! 따숨마켓이 단순히 사회적 경제 기업들의 물건을 파는 데만 집중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경제에서 다루는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체험공간들도 있어서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의 장소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아이들과 함께 가면 좋을 천안놀거리로 따숨마켓 추천합니다 :)



국가유산을 보는 ‘혜안’, 사회적기업 혜안을 탐방하다

글 한울기자단 1기 신보현



“가까이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하면,
먼 곳의 사람도 찾아온다.”

_논어

안녕하세요. 충청남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홍보지원단 ‘한울’ 1기 신보현입니다. 이번 달은 충청남도의 사회적 기업을 탐방해보았습니다. 사회적경제를 이론으로만 알고, 실제 탐방을 하지 않는다면 상상누각이겠지요. 현재 충청남도에는 여러 사회적경제 기업이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모범적인 활동을 하는 ‘혜안’을 취재했습니다. ‘혜안’은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혜안의 사무실을 들어가 보니 눈 앞에 보이는 문구가 인상깊었습니다. ‘근자열 원자래(近者悅 遠者來)’란 글귀가 적혀 있는데요. 논어에 나온 말로 혜안이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철학이라고 합니다. ‘혜안’의 시작부터 포부까지 깊이 있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혜안’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나요?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경제동아리에서 출발했어요. 전통과 국가유산이 소중하다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을 테지만, 현대사회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만큼 매력과 경제성 등을 증명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당시 학교에서는 정말 오로지 ‘전통’만을 가르쳤기 때문에,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영역에 대한 갈증이 컸었던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실물경제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창업까지 하게 되었어요. 창업했을 당시에 총장님께서 대학생이 무슨 창업이냐고, 공부에 매진하라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납니다. 하지만 전 졸업도 전에 휴학과 창업했죠.

부여에서 창업을 결심한 계기는 무엇인가요?

엄밀히 말하면 결심한 게 아니에요. 다니던 학교가 부여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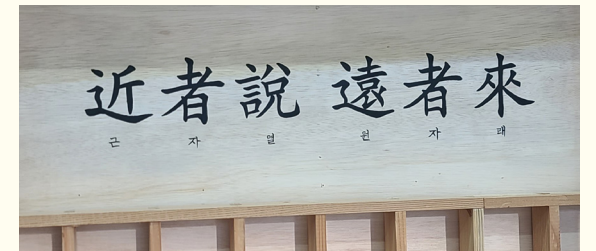
있었고, 우연히 좋은 기회가 생겨 부여에서 창업을 시작하게 된거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우연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 사업 아이템인 ‘국가유산 활용’은 경주나 전주 같은 곳에서는 이미 레드오션인데, 부여는 이제 막 시작하던 시기였거든요. 역사문화도시이지만, 백제가 패전국이었기 때문에 사료가 남아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활용’에 보수적이었죠. 하지만 그랬기 때문에, 저는 부여는 미개척지라는 인식이 생겼고, 이 곳에서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 있었어요.

혜안의 대표적 사업모델은 무엇인가요?

문화기획사들은 보통 BM을 물어오면 참 곤란할 때가 많습니다. 워낙 다양한 일들을 하거든요. 저희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 땐, ‘광고’라고 하는 편이에요. 전통과 국가유산은 항상 그 자리에 온전히 있는 반면에, 시대가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가치와 평가가 달라지잖아요. 그 가치를 발견하고 시대에 맞게 해석하고 메시지를 전하는 것. 저는 이것이 광고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혜안의 국가유산 활용 사업은 국가유산이 가진 잠재력을 발견하고, 재해석하고, 이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이라고 볼 수 있는거죠. 백제문화제, 한산모시문화제와 같은 전통문화축제의 감도를 맡거나 킬러 콘텐츠를 개발하기도 하고요. 우리고장 국가유산,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알리기 위한 프로모션, 이벤트, 여행상품을 개발합니다. 최근에는 기업의 CSR 사업을 연계한 프로젝트와 국제교류 사업에 집중하고 있어요.

일반기업이 아닌 사회적기업을 창업하신 이유가 있나요?

국가유산은 공공재적 성격을 가집니다. 누구의 소유가 아닌 모두의 소유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자본주의 논리로 국가유산 활용을 영리 비즈니스로 할 순 없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렇다고 공공과 비영리 영역에 의존하기엔, 산업이 너무 경직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고요. 그래서 전통과 국가유산 분야에서는 제3의 영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그것이 사회적기업이라 생각했습니다.



‘혜안’의 사무실입니다. 간판의 가시성도 좋고, 사무실 내부의 인테리어도 좋았습니다.

혜안과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인연은 언제부터 시작했나요?

사업 초기부터 ‘사회적기업’ 인증 과정, 사업고도화 단계 등 도움을 안 받은 적이 없었죠. 사회적 경제는 호혜, 협동, 연대 등의 가치가 있는데요. 즉, 같은 바운더리 안에서 협동하고 협력을 해야 하는 것이 기본 전제이죠. 그것이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시작된 사회적경제의 태동이니깐요.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우리 충청남도의 사회적경제기업들을 도와주는 중간지원조직이기도 하지만 함께 생태계를 만들어나가는 동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충청남도 사회적경제의 생태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상호협력하고 있는 관계죠.

그동안 보람찼던 순간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보람찼던 순간은 크게 두 순간이 있어요. 먼저, 2018년 현대차 정몽구 재단이 선정한 펠로우 기업에 선정된 것이예요. 우리 ‘혜안’이 2015년 창업한 이후 큰 성과였어요. 처음 창업 시에는 지역에서 ‘사회적기업’을 잘 몰랐어요. 하지만, 펠로우 기업 선정을 통해 지역 내에서 사회적기업에 관한 인식

을 한 번 끌어올린 계기가 되었어요. 또, 전국단위 대회 수상을 하니 지역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내주시기도 했고요. 또한, 참여한 기업들이 거의 수도권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이었는데 그 중에 충청남도를 대표해서 펠로우기업에 선정된 것도 뿌듯했죠. 이로써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틀리지 않았구나'란 것을 느끼기도 했어요.



하나금융그룹과의 소셜벤처 업무협약
원)김영모 한국전통문화대 총장, 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두 번째는 작년인 2023년에 문화유산 국민신탁과 국외소재문화유산환수재단에 기부금을 낸 것입니다. 저희는 사회적기업으로 지역사회에 '사회서비스 제공'과 '물품 기부' 그리고 수해복구를 위한 모금 및 기부 등은 수행한 적이 있으나, 해안의 소셜미션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기부를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마음 속에는 언젠가 국가유산 활용 사업을 통해 수익금을 만들어, 국가유산 보존, 활용 및 환수에 기여할 것이라는 목표가 있었는데, 작년에 그 목표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해안이 지역 사회뿐만 아니라, 국가유산 분야에 자그마한 기여를 해서 보람 있었습니다.

해안이 모범기업으로 선정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시장 변화에 따라 비즈니스 모델은 조금씩 달라졌지만, 초기 설정했던 소셜미션을 고집스럽게 지켰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안은 전통과 국가유산을 보존, 전승하는 데에 기여한다는 소셜미션을 고수하고 있어요. 저희 슬로건은 '전통을 오늘에 맞게 디자인하다.'예요.

사람들이 '해안유산'이라는 말을 들으면 이 슬로건이 생각나게 하는 것이 목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에게 맡겨진 사업들은 해안유산 이름을 건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필사적으로 수행해요. 그렇게 사업을 수행하다보니 자연스럽게 팀원들도 저희 사명에 공감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되고, 진정성에 대해 정부와 관련 기관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대표님에게 '사회적경제'란 무엇일까요?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솔루션"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자본주의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자본주의 논리로 모든 게 비약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사각이 존재하거든요. 이것을 꼬집는 콘텐츠가 오징어게임, 에이트쇼 같은 작품이죠. 여기에 열광하는 이유도 사람들이 자본주의만으로 세상이 정의를롭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공감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사회적경제'는 자본주의의 사각지대를 포용하고, 함께 잘 살게 하는 대안이라 생각해요. 작년에 미국에 간 적이 있어요. 오레건 주 포틀랜드라는 도시에 방문했어요. 거기서 홀리스(노숙자)를 봤어요. 그들과 대화를 해본 결과, 결코 태만하거나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평소 우리와 같이 평범하게 지내다가, 다치거나 우연찮은 일로 인해 노숙자가 된 사람들이예요. 사회적 안전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거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부문뿐만이 아닌 민간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노력이자, 솔루션 중 하나가 바로 '사회적 경제'라 생각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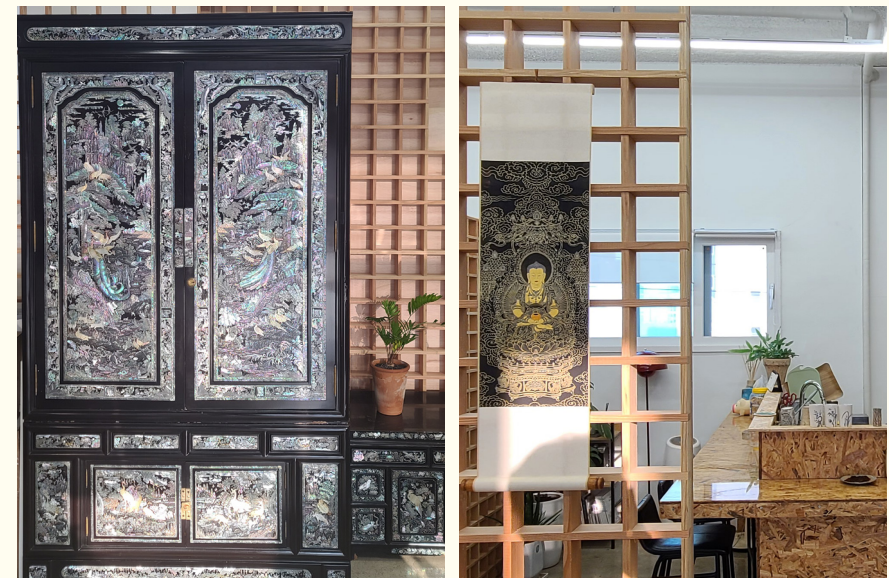
대표님에게 '부여'는 어떤 곳일까요?

처갓집. 의미적으로도 처갓집. 실제로도 처갓집이에요. 저는 고향이 부산이에요. '부여'는 완전히 낯선 타지였죠. 하지만, 부여는 매우 친절하게 받아줬어요. 재미난 청년이 동네

에 들어왔다면, 군에서도 동네에서도 저를 흥미롭게 봐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셨어요. 그렇게 푸근하게 정착한 기억이 있어서, 처갓집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정착 5년차쯤 부여 아가씨를 만나서 결혼했으니 실제로도 처갓집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제게 부여는 처갓집이죠.

'해안'은 앞으로 어떤 목표를 갖고 있나요.

최근 시대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국가유산 분야에서도 비즈니스 모델을 시도하고 창업하는 움직임이 활발한 것을 느꼈거든요. '해안'은 이제 안정기를 맞았어요. 최근에는 비즈니스적 관점뿐만 아니라 볼он티어십도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해요. 최근에 '해안유산 서포터즈'와 함께 부여 임천지역에서 플로깅을 진행했는데요. 이처럼 비즈니스 분야뿐만 아니라, 비영리, 사회적경제, 공공 등의 영역을 넘나들며, 국가유산의 가치 확산이라는 미션을 가장 잘 수행하는 팀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싶습니다.



사무실의 모습. 자개장과 불화가 인상적이다.

사회적경제 정책 변화 및 트렌드

한국사회적경제연대
하재찬 상임이사



부정적 프레임에 가두려는
정부 유혹에
넘어가 가지 말고,
이들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평가하여 지속가능한 사회로
넘어가자!

올 해 사회적경제 예산은 총 4,851억원으로 전년 대비 56%가량 삭감됐다. 가장 크고 많은 예산을 삭감한 곳이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이다. 삭감 이유는 높은 정부 의존도에 비해 성과가 미미하다며 '자생력 제고'를 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것이 지난해 9월 발표한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23~'27)'의 핵심 내용이다. 내년 예산은 이보다 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기업이 근로자를 채용할 때 지원하는 인건비를 내년부터는 일절 지급하지 않기로 하고, 관련 예산을 '0원'으로 편성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의 경우도 '0원'으로 고용부 내부는 합의한 듯하다.

고용부는 '21년 12월, 5년간 1,809개 사회적기업 신규진입('07~'16 1,905개소), 전체 노동자 중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등 노동취약계층 고용 60%,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을 통한 창업성 공팀 4년간 2,837개소('11~'16 누적 1,952개소) 증가, 기업 당 평균매출이 '16년 15.8억원에서 '20년 19.6억원 증가 등 성과를 발표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시기에도 사회적기업의 기업당 평균 고용인원과 취약계층 평균 고용인원이 늘었다고 별도의 보도자료를 통해 호평하였다. 이랬던 고용부가 말이다.

사회적기업 중 정부의 인건비 지원을 받는 사회적기업은 약 30%에 불과하지만, 사회적기업을 비롯한 사회적경제 기업이 어렵다.

가장 큰 원인은 지원금에 대한 부정수령이 1.1%에 불과한 것을 정부가 침소봉대하며 이를 부각하여 부정적인 프레임을 씌운 것이다. 고용부는 직접 지원을 줄이고 다양한 민간 자원을 연계 하는 것으로 대신하겠다고 했으나 연계되던 자원도 끊기고 있고, 시장에 부정적 인식을 갖게 하여 사회적 관계망을 훼손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제정되어 16년간 활동한 사회적기업은 2007년 55개에서 3,737개(2023년 기준)로 급증했다. 사회적기업의 전체 고용 인원수는 6만2312명이며, 이중 취약계층 고용 인원수는 3만6605명(58.7%)에 이른다. 2023년 6차에 걸쳐 370개의 사회적기업이 인증되었으나 2024년은 2차 인증을 진행한 현재 43개이다. 2023년 1차 평균 62개가 인증을 받은 것에 비하여 22개로 약 1/3에 불과한 수준이다.

고용부는 예산을 삭감하며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를 거쳐 지역 중심의 효과적인 육성지원 전달체계를 한 순간에 없애버렸다. 그리고 전국 19개 성장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이를 대신하여, 사회적기업 진입을 위한 인·지정 컨설팅 및 성장 지원을 위한 인사·노무·회계 등 컨설팅과 지역 네트워크 형성 등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올 상반기 교육 135회, 컨설팅 76회, 경영진단 667회 지원했다는 설명과 함께, R&D, 마케팅, 판로, 경영컨설팅 등 전문 컨설팅

용역업체 선정이 마무리되는 7월 이후 컨설팅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 고용부는 설명한다.

진흥원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2024년 소셜캠퍼스 온(서울1·서울2·인천) 입주기업 전문 멘토링 지원 용역, 2024년 성장지원센터(광주전남) 입주기업 전문 멘토링 지원 용역(긴급공고), 2024년 충청권 성장지원센터 입주기업 전문 멘토링 운영 용역(긴급공고), 2024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후속지원사업 운영 용역, 2024년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입주기업 역량강화 지원사업 운영 용역(긴급공고) 등 중간지원조직을 통해 수행하던 사업이 용역사업으로 입찰을 진행했거나 하고자 하는 것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그런데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렇게진흥원이 직접 지원하지 않고 용역을 통해 사업을 수행할 것이면 그 동안의 노하우와 지역 기반의 다양한 자원을 확보하고 컨설팅 역량을 키워왔던 중간지원 조직을 왜 해 수준으로 왜 붕괴시켰나? 200명 이상의 활동가를 쫓아내면서 말이다. 너무 너무 이상하다. 아!!! 기존 예산에 비하여 20~30% 수준으로 (용역)사업을 수행한다는 효과는 있을 것 같기도 하다. 이 효과를 위해 이렇게?

더욱 심각한 것은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지부에서 사회적기업 인·지정 지원을 하기로 했다. 성장지원센터에서 지원 안 되기 때문이다.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거나 인가 받기 위해 성장지원센터에 문의하면 지원할 수 없다는 답을 어렵지 않게 듣는다고 한다.진흥원 직원들을 파견한 성장지원센터가 건물관리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소리가 현장에서 흘러나오며 무용론이 흘러나온다. 사회적기업이 정부 자신들이 이야기 한 것처럼 마치 성과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갈 정도다.

이런 상황을 매우 절박하게 바라보고 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사회적경제에 대한 부정적 프레임이 고착되고, 20~30% 수준의 질 낮은 수준으로 지원시스템이 자리잡는 것은 물론이고, 사회적경제 기업의 공공성과 사회성이 무시 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16개 부처에서 56개의 정책이 설계될 정도의 사회적 가치 창출 주체로 자리매김 되려던 사회적경제가 자리매김을 못 하게 될 것이고, 다시 자리잡기 위해서 10년 가까운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정책전환이 현장과 지역에 어떤 현상으로 드러나고 있고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평가를 해야 한다. 그것을 기반으로 정책 설계가 다시 되도록 해야 한다. 지금 평가 대

상인 고용부 등 정부, 그리고 진흥원과 협력하여 우리 사회적경제의 부정적 프레임이나 전달체계 등이 고착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정책 전환이 지역과 현장에 어떤 현상으로 드러나고 영향을 주고 있는지 점검하여 이를 평가하여 부정적 프레임과 전달체계를 회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는 올해도 정책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현장의 적극적인 협력과 소통이 필요하다.

UN이 2015년부터 지속가능발전 이행 수단으로 ‘사회적경제 활용’ 명시, 지난해 4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결의안 채택, 내년을 <제2차 세계 협동조합의 해>로 지정하는 등 정치사회적 국제적 흐름은 사회적경제에 관심을 두고 있다. 이뿐 만이 아니라 ESG와 관련한 기업과 투자 수요가 높아지며,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투자인 ‘임팩트 투자(Impact Investing)’에 대한 수요도 확산되고 있다. 정책모니터링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어 부정적 프레임을 벗어 던질 수 있다면, 우리는 적토마를 더 빨리 올라타게 될 것이다. 정책 평가를 빠르고 정확하게 진행하자! 협동분투 하자!



2024 센터 하반기 주요사업 안내

7월~12월

사회적경제 오프라인 홍보<사회적경제오프라인홍보부스운영>
ex.청양고추구기자문화축제사회적경제인식확산홍보부스운영등

8월

대상별 역량강화교육<답실무4지식재산권,마케팅>
사회적경제 홍보지원단<‘한울’사회적경제기업제품리뷰>
2024년 제2차 충청남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공고

9월

충남 사회적경제 포럼<인구소멸에대응하는사회적경제>
사회적경제 홍보지원단<‘한울’사회적경제오프라인홍보 활동기획 및 실행>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구축<광역 중간지원조직 협의체 5차 회의>
(9월~11월) 충남 마을기업 온라인 기획전

10월

충남 사회적경제 어울림 행사<충남사회적경제한마당>
사회적경제 홍보지원단<‘한울’사회적경제기업창업아이디어구상>
마을기업 지정 공고
(10월~12월) 프로젝트 상생 쇼미더임팩트 시즌4

11월

대상별 역량강화교육<답실무5(e나라도움시스템활용교육_정산)>
사회적경제 홍보지원단<‘한울’사회적경제기업창업아이디어구상>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구축<광역 중간지원조직 협의체 6차 회의>

12월

대상별 역량강화교육<중간지원조직역량고도화(하반기)>
충남 사회적경제 포럼<시군사회적경제네트워크활성화>